



불교대학을 찾아서

① 광주불교대학

올해 2월 광주불교대학을 졸업한 임희재(47, 거사는 광주불교대학원에 입학,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치평동 향림사를 찾는다. 요즘은 수요일에도 불교대학에 나올 일이 생겼다. 열린 강좌로 마련된 친구회 특강을 듣기 위해서다. 딱딱한 입장을 포기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대학원에서 경전 강독을 하고 있는 임 거사에게 열린 강좌는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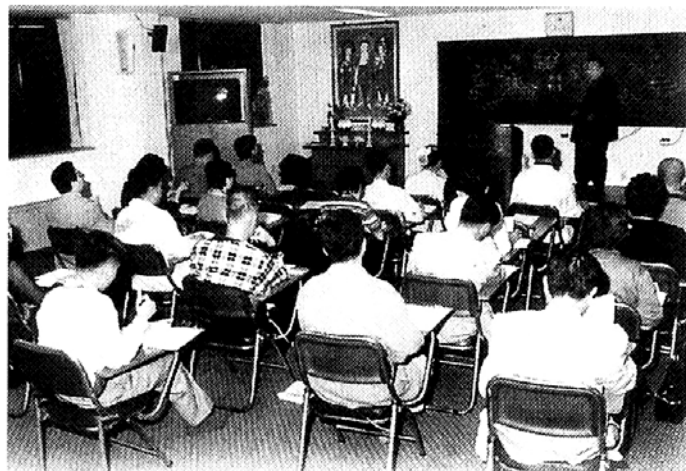
임 거사는 "정규 교과과정과 달리 열린 강좌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좋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유난히 미약한 호남지역의 불교를 증흥하겠다는 대원사 조실 천운스님(조계종 원로위원의 원력으로 세워진 광주불교대학 교장 법인, 대원사 수련원장은 호남불교 교육의 중심에 있다. 광주불교대학이 이같은 위치에 서기까지는 천운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 불자들에게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천운스님의 지론이 불자들을 광주불교대학으로 끌어 모은 것이다.

광주불교대학은 91년 9월 1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불교학개론, 인도·중국·한국불교사, 불전개설, 포교방법론, 불교윤리, 대승불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미술사, 유식사상 등 기초에서 전문교육과정까지 빈

틈없이 짜여진 교과과정에 맞춰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야외법회와 큰스님 친견법회, 철야정진법회, 수련회 등 신형실수까지 전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관리로 졸업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향림사에 학사(學舍)를 마련, 이들의 생활을 돕는 등 복지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2시간씩 진행되는 강의는 법인스님, 이계표 광주대 교



◀광주불교대학 10기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관무량수경, 화염경 등 경전 중심의 강의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불교대학은 개교 이래 603명의 졸업생과 250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고도소, 군,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포교활동과 봉사활동으로 불교를 사회에 실천하는 불자상을 만들어가는 등 11년

천운스님 '호남불교증흥' 서원 91년 설립

95년 대학원과정 개설 경전중심 강의

개교후 포교사 250명 배출 각계서 활동

수(광주 문화재단위원장), 해광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이등배 교법사(정광종, 고교), 성오스님(나주 심향사 주지, 경철 남부대 객원교수 등이 맡고 있다.

개교 이후 4년째 되던 95년 3월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불교대학 졸업 후 입학이 가능한 대학원은 교리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원정을 보완,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

의 역사속에 지역의 명실상부한 수행공간이자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안장연 교학과장은 "한국제일의 불교대학으로 키운다는 마음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학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062.375-7633

광주=박병영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 딸사는 이야기



<11> 계단밑 소녀 사프나

주인집 시중...이사온 나에게 항상 무표정

어느날 하교길 소녀얼굴에 환한 웃음이...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사프나는 불빛도 희미한 계단 밑 문턱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너털너털한 학습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주인 집 아이들이 내버린 학습서를 뒤적이는 줄만 알았다. 헌데, 아니었다. 알고 보니 사프나는 그때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것

이었다.

지난 봄이었다. 보리수가 서 있는 이 동네 언뜻가 큰길에서 푸른 공립학교 교복을 입은 한 떼의 어린 소녀들을 보았는데, 사프나도 거기 같이 걸어들어가고 있었다. 사프나는 그날 처음 내게 인사를 하며 활짝 웃었

다. 사프나 옆에서 같이 인사하며 환하게 웃던 소녀는 옆집에서 일하는 소녀였다.

주인집 아이들은 넥타이를 매는 멋진 교복을 입고 사립학교에 다니다. 주인집 아이들은 어른들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온다. 그러나 푸른 공립학교 교복을 입은 사프나 같은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끼리 통학한다.

사프나에 교복은 늘 꾸깃꾸깃하다. 단이 터진 옆구리는 땀으로 여뒀다. 사프나는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사프나! 사프나!' 하고 주인 집 여자가 부르기 때문에 교복 갈아입기도 바쁘다.

'사프나'는 우리말의 '꿈'이라는 뜻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프나.

오늘밤도 소복소복 먼지가 내려앉는 계단 밑에서 잠든 사프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어린이 포교 앞장 장의염불 봉사도

10기 졸업생 한해련 포교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고 싶다" 올해 광주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가 된 한해련(44·광산구 소촌동) 씨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과 함께 6개월째 향림사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있다. 틈나는 대로 함창단, 광주교도소 재소자 포교와 장의염불 봉사도 하고 있다. "불법에 의지해 백혈병을 이겨낸 한 포교사의 믿음에 감화돼 불자가 됐다"는 한 포교사는 한사람이라도 더 불교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중풍환자 할아버지의 집 걱정

"더부살이 집 곧 팔린대"

서울시 진관내동 슬레이트 단층집, 계절은 초가을 앞에 서있지만, 방안은 찜통이다. 그 방, 한 곁에 수북이 쌓인 플라스틱 약병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꺼진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 집에서 5년째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정완고 할아버지(69)를 만났다. 힘겹게 침대 보기도 하는 정 할아버지가 영 못 마땅한 눈치다. 부담스러운 눈빛이 역력하다.

"11년 전 만해도 서울 개포동에 비닐 하우스 천막치고 살았어. 6.25전쟁중에 부모님 모두 잃고, 34살 되던 해에 상경했어. 포장마차, 노점상, 막노동 안 해본 것이 다해봤지. 이 맘 때, 노점상 자리까지

있어. 중학생 때는 늑막염에다 폐결핵까지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질병에 대한 열등감으로 여태껏 살아왔어."

정 할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어 보인다.

요즘 들어 정 할아버지는 큰 근심이 생겼다. 기관지 염증으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얹혀살고 있는 집이 곧 팔리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더 믿고 의지할 경식 씨와 딸 어저 살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설친다.

"이 집이 곧 팔린대.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경식의 딸이 떨어지면 큰일이야. 나 참. 한달 정부지원금 20만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처지에... 최근 국민기초수급자 무로조제복록에서 빠진 번비약, 혈

노점상 자리다툼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식사·빨래 은평복지회관 도움으로 해결

움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었지. 내가 '아들' 처럼 여기는 경식씨도 이때 만났어."

정 할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박경식 씨(55). 종로통에서 노점상 하다가 어렵게 사는 정 할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고 함께 살고 제안했던 사람이다. 이때부터 정 할아버지의 '더부살이' 생활이 시작됐다. 박 씨



◀기관지 염증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정완고 할아버지가 힘없이 약병을 들고 있다.

액순환제 같은 것을 고스란히 돈 주고 사먹어야 할 판에 함께 옮겨 갈 집을 얻을 수 나 있겠어?"

정 할아버지. 힘겹게 말을 또 잇는다. "전생애 죄가 많아 이렇게 사는 가봐. 남의 신세만 지고 사니 답답하기만 하지."

식사와 빨래는 은평노년복지관에서 재가복지

는 살뜰히 챙겨주지만, 그래도 마음 한 곁은 미안함이 꼭 들어차 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부자지간'이라고 소문까지 나있더라고. 그런데 경식이 실정에 문제가 생겨 마땅한 일도 못 찾고 밖으로만 나와 다녀. 얼굴 보기도 힘들어."

정 할아버지. 아예 결혼하지 않았다. 자식도 없다. 이렇다보니, 박 씨에 대한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다.

"결혼? 팔자지 뭐! 어려서 땀 흘려서 원판을 크게 다쳐서. 평생 병신처럼 살

서비스 받고 있지만, 집 문제 만큼은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 할아버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흘러간 옛 노래에 마음을 싣는다. 호흡이 짧아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하지만, 흥얼거리며 고개만 연신 떨린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388-14

전화번호 : (02)383-9515

후원 계좌 : 서울은행 34704-

1933702(예금주 정완고)

김철우 기자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 정기법회 안내

귀의 상보하옵고

부산여고 재경 동문 불자모임인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 창립총회와 창립법회가 2002년 7월 18일 동창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시며 동문이시기도한 해주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매월 정기법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 1회 정기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의 발전으로 불국토를 이루는 공덕을 함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2년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교통편 : 3호선 지하철 동대입구역(6번 출구)
- 문의 연락처 : 총 무 011-9785-1428, 서 기 011-447-1410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법회 전날 오전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이 아닌 불자님들의 법회 참여도 환영합니다.)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 회장 조용수 (삼법성) 합장

전국비구니회관 법회 및 교양강좌 안내

한국불교의 밑거름이 되어온 6000여 비구니스님의 30여년간의 염원이 담긴 전국 비구니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회사는 비구니스님들의 재교육과 복지를 뒷받침할 비구니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불자가족의 구성성이 되어 행복한 세상을 가꾸어 가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2002년 9월 23일 일요일 개강)

1. 기도정진

프로그램	시 간	요 일	강 사
일요법회	오전 10:30	일요일	광우스님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스님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철야정진	저녁 10:00	첫째, 셋째주 토요일	은일스님(법통사 도감) 도원스님(법통사 대종)
참선센터			

2. 법통불교대학

프로그램	시 간	요 일	강 사
경전교실 (천수경)	오 전 10:30-12:00	금요일	임근동 (한국외대 인도어과 강사)
禪사상	오 전 10:30-12:00	월요일	해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3. 봉사활동

- 범 통 봉사 회 -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 범 통 상 담 센터 - 형제·자매 맺어주기, 진로상담, 만나고 싶은 스님 가까이 하기

4. 문화강좌

프로그램	시 간	요 일	강 사
선재스님 사찰음식	오전 10:00-12:00	화요일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원 원장)
금강선수도	오전 5:00 - 오후 9:00	매 일	광원스님
한지공예	오후 1:00 - 4:00	수요일	법연스님
니르바나음악교실	오후 2:00-6:00	월요일, 목요일	바이올린 강사 : 강형진(니르바나실내악단 단장)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 스님에 배우는 어린이한자교실 - 영어이야기 교실 - 경전이야기 교실 - 가족이 함께 민요 부르기	토요일 오후 일요일 법회 후		김자재행

* 강사의 사정에 따라 요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니르바나 실내악단 금요콘서트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7:00 (첫 콘서트 10월)

◆ 교 통 편

지하철 : 3호선 일원역 1번출구 (삼성의료원 방향)
B U S : 813-2, 288, 83-1, 16 (일원역 일원동사무소 하차, 삼성의료원 방향)

◆ 무료공개강좌 안내

9월 10일 (화) 금강선수도(강사:광원스님) 오전 10:00
시찰음식(강사:선재스님) 오전 11:00

전국 비 구 니 회 관

서울시 강남구 서서동 744번지 ☎(02)733-5467